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현주¹ · 정수경¹ · 김명자²

우송대학교 간호학과¹, 동의대학교 간호학과²

The Effects of Healthcare Major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on Life Competencies

Hyun-Joo Lee¹ · Su-Kyoung Chung¹ · Myung-Ja Kim²

¹Department of Nursing, Woos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level of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ies, academic and English achievement of healthcare major students in university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ree main competencies on their academic and English achievement.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studying in health care related major at a four-year university in D-city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Some of their data were intentionally excluded as their answers were incomplete or missing and finally 272 surveys were analyzed.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y have high level of general life competencies of which the subcategories are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GPA and TOEIC score which are the indicators of academic and English achievement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three competencies.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is assumed to be main cause variable of these achievement.

Conclusion: As those students who have higher academic and English achievement also show high level of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It is argued that a new curriculum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e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Key Words: Competency,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Achievem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단계 상으로 성인기에 있지만 완전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졸업 후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시기에 학업적 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가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며, 이러한 학업성취는 일종의 성공경험으로서 개인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대학 졸업 후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Lee, 2011).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수교과에 대한 평가결과인 학점(Grade Point

Corresponding author: Myung-Ja Kim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995 Eomgwangno, Busanjin-gu, Busan 614-714, Korea.
Tel: +82-51-890-1558, Fax: +82-51-890-2621, E-mail: deukmj@deu.ac.kr

투고일: 2013년 06월 17일 / 심사완료일: 2013년 08월 08일 /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09일

Average)이 이용되고 있다. 학점은 보다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대학생의 역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분석하거나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준거로 활용하고 있다(Lee & Kim, 2012).

또한 사회의 각 분야마다 필요로 하는 전문가에 대해 글로벌 역량 평가를 위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영어강좌의 수를 늘리고 영어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Lee, 2012). 대학원 진학 및 기업 채용시 영어능력 평가 지표로 토익(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 사용되고 있다. 토익은 수험자가 받은 점수와 수험자의 실제 영어능력과의 상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많은 대학들이 교양영어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토익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선정하거나 졸업인증 기준 점수로 토익성적을 요구하고 있어서 토익학습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Cha & Joo, 2012). 이처럼 많은 대학과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점과 토익 성적에 기초하여 개인의 대학생활 성취도 향상을 분석하거나 선발준거로 활용되고 있어서 대학시기의 학점과 토익성적은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체화된 역량과 능력이 중요시되며 이러한 역량과 능력을 생애능력이라고 한다(Yu, Kim, Lee, & Song, 2004). Lee, Jang, Lee와 Park (2003)은 주요 생애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제안하였다. 생애능력은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직업적으로 생산적이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습득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Jang et al., 2002). 또한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해 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이며,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 주어야 할 핵심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이 시대의 요구에 따른 직업사회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 종합,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생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대학생의 생애핵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통해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Lee et al., 2012).

특히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일차적인 교육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있다. 또한 보건의료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영어의 필요성은 지식습득의 수단을 넘어 의사소통 수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Lee, 2012).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은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전공뿐 아니라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질 높은 전공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생은 대학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스로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이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계열의 특성상 요구되는 학습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학생의 생애능력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Lee 등(2012)은 단순한 학점에 의한 성취도가 아닌 6가지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대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하였으나 기존의 학점과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학점과 자기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거나(Song, Lee, & Sul, 1986; Cho, 2007; Baik, 2011), 대학생의 학점과 문제해결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등(Baik, 2011) 생애능력 중에서의 일부 요인과 학점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주요 생애능력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개인의 진학이나 채용시 준거의 틀로 이용되고 있는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 시 준거의 틀로 이용되고 있는 학업 및 영어 성취도가 생애능력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학업 및 영어 성취도 향상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학업 및 영어 성취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 및 영어 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인들이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들이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자기주도학습능력 하위요인들이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 광역시 소재 1개 대학교의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이었으며 대상자 수는 Cohen's G*Power calcul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양측검정 상관관계 분석 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f) .2,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표본 수는 191 이상이 요구되었다(Faul et al., 2007). 이에 연구자는 인터넷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넷 설문조사에 제대로 응답한 272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업성취도

고등교육의 성과로서 학업성취도는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교육과정의 경험을 통하여 대학생에 체화되는 결과를 의미한다(Lee & Kim, 2012).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의 정도를 학점(Grade Point Average)으로 측정하였다. 학점은 지난 학기 동안 개별 이수교과목의 평점인 학점을 의미하며 4.5점이 만점이다.

2) 영어성취도

영어성취도는 토익성적을 의미한다. 토익(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본래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 시험으로서 해마다 약 700만 명이상이 응시하고 있다(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13). 토익은 듣기 및 읽기 영역으로 각각 10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200문항을 120분 동안 답해야 하며 990점이 만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취득한 토익공인성적을 의미한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이 갖는 사회적 속성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지식을 말하며,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한다(Spitzberg & Cupach, 1989).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3)이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정보수집, 경청,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 의사소통/개방적 의사소통, 자기드러내기,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관점 이해 등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였다.

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 활동이며 창의적 능력을 말한다(Lee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3)이 개발한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문제해결능력은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평가, 피드백 등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4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5)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

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Knowles, 1975).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3)이 개발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는 학습욕구진단, 학습목표설정, 학습자원과약, 자기관리능력, 학습전략선택, 학습실행지속성, 결과노력귀인, 자기성찰 등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총 45개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3$ 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2$ 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2년 1월 27일 한국보건의로연구원 공용 IRB 승인을 득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자는 해당학과의 학과장 승인을 득한 후에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공개하거나 사용되지 않으며 개상자의 개인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를 안내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들은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를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동의한다는 것을 표시한 후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영어성취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 및 영어성취도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요인들이 학업성취도 및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8.0%(49명), 여학생은 82.0%(223명)이었고, 평균연령은 19.8세이었으며, 18~22세 사이가 95.2%(259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공 학과는 간호학과 학생이 45.6%(124명)이었으며 이외의 학과는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로 구성되었다. 학년은 1학년이 40.8%(111명)로 가장 많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순이었으며 4학년은 0.7%(2명)밖에 되지 않아 3학년과 4학년을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인문계 출신이 96.7%(263명)이며, 이중 이과생이 45.2%(123명), 문과생이 51.5%(140명)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2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49 (18.0)
	Female	223 (82.0)
Age (year)		19.77±1.51
	18	50 (18.4)
	19	85 (31.3)
	20	70 (25.7)
	21	39 (14.3)
	22	15 (5.5)
Major	Nursing science	124 (45.6)
	Other health care major	148 (54.4)
Grade	Freshman	111 (40.8)
	Sophomore	95 (34.9)
	Junior & Senior	66 (24.3)
High school affiliation	Natural sciences or engineering	123 (45.2)
	Humanities	140 (51.5)
	Others	9 (3.3)

2.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및 영어성취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 및 영어 성취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중 의사소통능력은 3.46 ± 0.30 , 문제해결능력은 3.48 ± 0.42 , 자기주도학습능력은 3.43 ± 0.44 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에 비해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 중에

<Table 2>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Academic Achievement (N=272)

Variables	Subcategory (item number)	Min	Max	M±SD
Communication competency	Collection of information (7)	2.57	4.86	3.81±0.44
	Listening closely (7)	2.14	5.00	3.53±0.46
	Overcoming perspective (7)	1.57	4.86	3.46±0.60
	Creative communication (7)	1.57	4.43	3.20±0.38
	Self-disclosure (7)	1.57	5.00	3.45±0.58
	Leading communication (7)	2.00	5.00	3.22±0.59
	Understanding others (7)	2.00	5.00	3.58±0.55
	Total (49)	2.61	4.61	3.46±0.30
Problem-solving competency	Problem recognition (5)	2.40	5.00	3.69±0.56
	Information gathering (5)	2.20	5.00	3.39±0.58
	Analysis ability (5)	1.80	5.00	3.46±0.59
	Divergent thinking (5)	1.80	5.00	3.32±0.56
	Decision making (5)	1.80	5.00	3.58±0.59
	Planning ability (5)	1.00	5.00	3.43±0.69
	Practice and taking the risk (5)	1.40	5.00	3.26±0.67
	Appraisal (5)	1.60	5.00	3.61±0.58
	Feedback (5)	2.00	5.00	3.54±0.57
Total (45)	2.44	4.69	3.48±0.42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Intellectual appetite assessment (10)	1.10	5.00	3.38±0.54
	Setting learning goal (5)	1.20	5.00	3.41±0.77
	Grasping learning resources (5)	1.80	5.00	3.31±0.65
	Basic self management ability (5)	1.60	5.00	3.55±0.64
	Selection of learning strategies (5)	2.20	5.00	3.42±0.57
	Durability of learning practice (5)	2.00	4.60	3.36±0.46
	Results for effort attribution (5)	2.00	5.00	3.56±0.63
	Self-reflection (5)	1.40	5.00	3.51±0.64
Total (45)	2.11	4.82	3.43±0.44	
Previous semester GPA		2.17	4.45	3.52±0.46
Recent TOEIC score		50.00	950.00	519.61±214.06

서는 정보수집이 3.81±0.44, 문제해결능력 중에서는 문제인식이 3.69±0.56, 자기주도학습능력 중에서는 결과노력귀인이 3.56±0.63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에서는 창의적 의사소통이 3.20±0.38, 문제해결능력 중에서는 실행과 모험감수가 3.26±0.67,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는 학습자 원파악이 3.31±0.65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는 3.52±0.46점, 영어성취도는 519.61±214.06점으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 및 영어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 및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r=.109, p=.073$), 영어성취도($r=.142, p=.0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인 중에서는 정보수집($r=.120, p=.047$), 경청($r=.198, p=.001$), 주도적 의사소통($r=.188, p=.002$), 타인관점 이해($r=.198, p=.001$)가 영어성취도와 관련이 있었고, 학업성취도와는 타인관점 이해($r=.153, p=.012$)에 관한 부분에서만 관계가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의사결정($r=.149, p=.014$), 기획력($r=.15, p=.013$)과 평가($r=.174, p=.004$)가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었고 전체 문제해결능력도 관계가 있었다($r=.148, p=.015$). 영어성취도와의 관계에서는 확산적 사고($r=.056, p=.355$)와 실행과 모험감수($r=-.006, p=.925$)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이 없고 그 외 7개의 모든 요인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체 문제해결능력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195,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s	Categories	GPA	TOEIC score
		r (p)	r (p)
Communication competency	Collection of information	.116 (.057)	.120 (.047)
	Listening closely	.104 (.086)	.198 (.001)
	Overcoming perspective	-.073 (.229)	-.104 (.088)
	Creative communication	.058 (.343)	-.064 (.294)
	Self-disclosure	.022 (.714)	.043 (.476)
	Leading communication	.098 (.107)	.188 (.002)
	Understanding others	.153 (.012)	.198 (.001)
	Total	.109 (.073)	.142 (.019)
Problem-solving competency	Problem recognition	.064 (.295)	.199 (.001)
	Information gathering	.017 (.785)	.157 (.010)
	Analysis ability	.087 (.154)	.146 (.016)
	Divergent thinking	.064 (.291)	.056 (.355)
	Decision making	.149 (.014)	.179 (.003)
	Planning ability	.150 (.013)	.142 (.019)
	Practice and taking the risk	.098 (.107)	-.006 (.925)
	Appraisal	.174 (.004)	.195 (.001)
	Feedback	.108 (.075)	.168 (.005)
	Total	.148 (.015)	.195 (.001)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Intellectual appetite assessment	.319 (< .001)	.186 (.002)
	Setting learning goal	.178 (.003)	.245 (< .001)
	Grasping learning resources	.188 (.002)	.094 (.121)
	Basic self management ability	.219 (< .001)	.097 (.109)
	Selection of learning strategies	.172 (.004)	.164 (.007)
	Durability of learning practice	.221 (< .001)	.163 (.007)
	Results for effort attribution	.296 (< .001)	.192 (.001)
	Self-reflection	.146 (.016)	.164 (.007)
	Total	.310 (< .001)	.229 (< .001)
GPA		1	.211 (< .001)
TOEIC score		.211 (< .001)	1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r=.310, p<.001$)와 영어성취도($r=.229, p<.001$)에서 다른 생애능력보다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하위요인에서는 학습자원파악($r=.094, p=.121$)과 자기관리능력($r=.097, p=.109$)만 영어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그 외 하위요인에서 학업성취도 및 영어성취도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11, p<.001$).

4.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 및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주요 생애능력 중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학업 및 영어성취도에서 낮은 관련성을 보였으나 세 가지 능력 모두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 및 영어성취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능력의 하위요

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를 각각 결과변수로 보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요인 중 상호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요인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의사소통능력에서는 타인관점이해($t=2.537, p=.012$)가 있었으나 2%의 설명력을 보였다($F=6.436, p=.012$). 문제해결능력에서는 평가($t=2.903, p=.004$)가 2.7%의 설명력으로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었고($F=8.427, p=.004$),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는 학습욕구진단과 결과노력귀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학습욕구진단($t=5.540, p<.001$)만을 원인변수로 보았을 때는 9.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30.692, p<.001$), 학습욕구진단($t=3.327, p=.001$)과 결과노력귀인($t=2.565, p=.011$)을 원인으로 간주했을 때 설명력은 11.7%로 나타났다($F=18.954, p<.001$).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의사소통능력에서 타인관점 이해($t=3.318, p=.001$)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때는 3.6%의 설명력을 가졌고($F=11.008, p=.0012$), 타인관점이해($t=2.265, p=.024$)와 주도적 의사소통($t=1.998, p=.047$)을 원인변수로 고려했을 때 4.6%의 설명력을 보였다($F=7.560, p=.001$). 문제해결능력에서는 문제인식($t=3.339, p=.001$)이 3.6%의 설명력으로 영어성취도를 예측하였으며($F=11.149, p=.036$),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는 학습목표설정($t=4.151, p<.001$)만 적용할 경우 5.7%의 설명력을 보였다($F=17.232, p<.001$).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 학습목표설정($t=3.262, p=.001$)에 결과노력귀인($t=1.982, p=.049$)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6.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10.673, p<.001$).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Table 6과 같다. 학업성취도에는 자기주도학습능력($t=5.355, p<.001$)만 9.3%의 설명력을 보였고($F=28.677, p<.001$), 영어성취도에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t=3.874, p<.001$)만이 영어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쳤다($F=15.005, p<.001, \text{Adj. } R^2=.049$).

<Table 4> Competency Factors Influencing GPA

I.V.		B	SE	β	t	p	F (p)	Adj. R ²
Communication	(Constant)	3.059	.183		16.749	<.001	6.436	.020
	Understanding others	0.128	.050	.153	2.537	.012	(.012)	
Problem-solving	(Constant)	3.016	.175		17.240	<.001	8.427	.027
	Appraisal	0.139	.048	.174	2.903	.004	(.004)	
Self-directed learning	(Constant)	2.588	.170		15.246	<.001	30.692	.099
	Intellectual appetite assessment	0.275	.050	.319	5.540	<.001	(<.001)	
	(Constant)	2.406	.182		13.194	<.001	18.954	.117
	Intellectual appetite assessment	0.194	.058	.226	3.327	.001	(<.001)	
	Results for effort attribution	0.128	.050	.174	2.565	.011		

<Table 5> Competency Factors Influencing TOEIC score

I.V.		B	SE	β	t	p	F (p)	Adj. R ²
Communication	(Constant)	245.338	83.643		2.933	.004	11.008	
	Understanding others	76.672	23.109	.198	3.318	.001	(.001)	.036
	(Constant)	165.809	92.219		1.798	.073	7.560	.046
	Understanding others	56.747	25.053	.146	2.265	.024	(.001)	
	Leading communication	46.856	23.455	.129	1.998	.047		
Problem-solving	(Constant)	239.042	84.988		2.813	.005	11.149	.036
	Problem recognition	75.995	22.760	.199	3.339	.001	(.001)	
Self-directed learning	(Constant)	286.641	57.520		4.983	<.001	17.232	.057
	Setting learning goal	68.417	16.481	.245	4.151	<.001	(<.001)	
	(Constant)	177.083	79.555		2.226	.027	10.673	.067
	Setting learning goal	56.789	17.411	.203	3.262	.001	(<.001)	
	Results for effort attribution	41.894	21.139	.124	1.982	.049		

<Table 6>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D.V	I.V.	B	SE	β	t	p	F (p)	Adj. R2
GPA	(Constant)	2.394	0.211		11.325	<.001	28.677	.093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0.327	0.061	.310	5.355	<.001	(<.001)	
TOEIC score	(Constant)	135.666	99.921		1.358	.176	15.005	.049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111.948	28.900	.229	3.874	<.001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대학생의 학업 및 영어 성취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생애능력에 대한 도구개발 당시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능력에 대한 모집단을 형성한 Lee 등(2003)의 연구에서 도구개발 당시 전체 생애능력 점수는 3.13 ± 0.29 , 의사소통능력은 3.13 ± 0.29 , 문제해결능력은 3.10 ± 0.45 , 자기주도학습능력은 3.21 ± 0.44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 3.46 ± 0.34 , 3.46 ± 0.30 , 3.48 ± 0.42 , 3.43 ± 0.44 로 본 연구가 선행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중에서도 창의적 의사소통이 도구개발 당시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개 대학의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를 일반 대학생 및 성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의사소통능력 중 창의적 의사소통 능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하위요인들과 전반적 생애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중상위 이상의 생애능력과 세부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Lee와 Kim (201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인 중에서는 타인관점 이해 요인이 정적 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나서 타인관점을 이해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춘 경우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영어성취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의사소통능력과 영어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와 비교는 제한이 있지만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경우 영어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인으로는 정보수집, 경청,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관점이해가 영어성취도와 양의 관계가 있어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시킴으로써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영어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학업 및 영어성취도와는 낮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에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과 이전 연구와의 관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면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가 동시에 향상됨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문제해결능력 중 의사결정, 기획력, 평가는 학업성취도 및 영어성취도와 양의 관계가 있는 하위요인이었고,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피드백의 요인은 영어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영역을 발전시키면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진다면 영어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졸업 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파악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r = .148, p = .015$)와 영어성취도($r = .195, p = .001$)에서 낮은 관련성을 보이더라도 학업 및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능력 또한 학업성취도와 정적상관($r = .310, p < .001$)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포함된 자기관리역량이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다($r = .117, p = .032$)고 제시한 Lee와 Kim (2012)의 연구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음($r = .187, p < .01$)을 나타낸 Cho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뛰어나면 학업성취도 또한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능력과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영어성취도가 양의 관계를 보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8개 하위요인 중 학습자원파악과 자기관리능력을 제외한 학습욕구진단, 학습목표설정, 학습전략선택, 학습실행지속성, 결과노력귀인, 자기성찰이 학업성취도 및 영어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습자원파악과 자기관리능력은 영어성취도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생애능력의 하위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의사소통능력에서는 타인관점이해, 문제해결능력에서는 평가가 주요 원인변수가 될 수 있었으나 이들은 설명력이 2%대로 낮아서 유용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제한되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는 학습욕구진단과 결과노력귀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도 11.7%인 것으로 나타나 학습욕구를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을 증대시킬수록 학업성취도가 향상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스스로의 학습욕구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도받고,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례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애능력의 하위요인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에서 타인관점이해와 주도적 의사소통이 원인변수로 간주되었으며 설명력도 4.6%로 나타나 학업성취도 보다 영어성취도가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을 더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에서는 문제인식이 원인변수가 될 수 있었고 설명력 또한 학업성취도 보다 높았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학습목표설정과 결과노력귀인이 영어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6.7%로 학업성취도보다는 다소 떨어졌다. 단기간에 점수를 낼 수 있는 학업성취도와 달리 영어성취도는 다양한 생애능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효과도 다소 떨어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측정하는 지표이자 취업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학업 및 영어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시험내용을 직접 공부하는 것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통해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생애능력(Lee et al., 2012)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r = .310, p < .001$)와 영어성취도($r = .229, p < .001$)에서 사회과학범위에서 인정하는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서의 상관관계는 .15에서 .19정도의 다소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각 능력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도 자기주도학습능력만 11.7%의 설명력을 보였고 다른 요소들은 5%보다 낮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특히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의사소통능력, 대학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스로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들과 학업 및 영어성취도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중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가 되었으며,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토대로 영어성취도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을 살펴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이 영어성취도에 대한 예측력보다 더 높았다. 학습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향상시키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양성되어지면 학업성취도

와 영어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일개대학 보건의료계열 대학생 272명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생애능력은 3.46 ± 0.34 점, 의사소통능력은 3.46 ± 0.30 점, 문제해결능력은 3.48 ± 0.42 점, 자기주도학습능력은 3.43 ± 0.44 로 모두 중앙값 이상이었고 일반성인 및 대학생 점수보다 높았다.

둘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 및 영어성취도와 상호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에서는 타인관점이해, 문제해결능력에서는 평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학습욕구진단과 결과노력귀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였다.

넷째, 의사소통능력에서 타인관점이해와 주도적 의사소통이, 문제해결능력에서는 문제인식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는 학습목표설정과 결과노력귀인이 영어성취도의 원인변수로 작용되었다.

다섯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지필식 설문조사가 아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어성적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 의도적인 설문참여 기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방 일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고, 국내 대학생 대상 연구는 일개 지역 일부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Kang & Kim, 2006; Lee, 2012; Lee, 2011)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지역, 학교, 전공에 따라 대상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생애능력과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요인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업 및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므로 다른 나머지 부분을 구성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일반 계열 대학생들과 현장 경험과 학습 등을 필수로 하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에게 체화된 역량과 능력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이 있는 학업성취도와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Baik, K. S. (2011).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2(1), 77-95.
- Cha, M. Y., & Joo, M. R.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schema activation on TOEIC score.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6(1), 283-304.
- Cho, H. S. (2007).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32(2), 57-72.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13). Retrieved from <http://exam.ybmsisa.com/toEIC/info/since.asp> June 1st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Jang, S. M., Kim, T. J., Kim, N. H., Lim, S. Y., & Chang, W. S. (2002). *Status and challenges on linkage system of school education and work based on life skill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ang, S. H., & Kim, D. H. (2006). Grade and gender differences in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dispositions and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nstruc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5-1), 25-48.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Cambridge.
- Lee, I. S. (2011).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5B), 2487-2500.
- Lee, J. I., & Kim, J. H.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2), 227-246.
- Lee, J. S. (2012). Doctors' needs analysis for developing ESP course for medical student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4(1), 273-297.
- Lee, S. H., Park, J. S., In, M. A., Bae, S. S., Jang, J. H., & Kim, S. H. (2012). The influence of health lifestyle to the learning attitude and the learning satisfaction of health affiliated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3(1), 13-22.
- Lee, S. J., Jang, Y. K., Lee, H. N., & Park, K. Y.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Song, M. J., Lee, B. O., & Sul, K. M. (1986). A survey on college students' study habits and attitude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ir academic performances. *Student Guidance Center Dong-A University*, 15, 5-30.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Y: Springer-Verlag.
- Yu, H. S., Kim, T. J., Lee, S. J., & Song, S. Y. (2004). *Research on the National Standards of Life Competencies and Quality Management for Learning System*.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